

# 親朴 곽성문의원 한나라 탈당

### “이회창 후보 지지 선언… 朴 前대표 캠프 인사 3~4명 합류”

한나라당 내 ‘친박’(親朴·친박근혜) 성향의 곽성문(사진) 의원이 29일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탈당 후 이회창 후보 측에 합류한 첫 인사다. 또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던 팀장급 인사 3~4명이 금주 말 또는 내주 초 캠프에 본격 합류할 예정이어서 향후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들의 연쇄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며칠 밤을 고심한 끝에 4년 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분명한 저

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다”면서 “저의 정치적 울타리였던 한나라당을 떠나 이회창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명박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며 그에 의한 정권교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위장전일, 위장취업 등 그동안 드러나 탈법과 위법 사실만으로도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후보에게 역사관과 철학이 있느냐.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합법정신,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면서 “성공만 하면 된다, 탈법과 편법이 있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실적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소속 이회창 후보 측은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연쇄 탈당 등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유석춘 캠프 정부특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곽성문 의원이 탈당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큰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이회창 후보로 옮겨오는 첫 단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용철 변호사 차명계좌 확인 중”

### 검찰,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일부 관련자 추가 출국 금지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를 일부 발견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는 29일 전국 87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김 변호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며, 일부 기관으로부터 김 변호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변호사가 고발장에 적시된 4개 계좌 외에 자신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주장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차명계좌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김 변호사 명의의 계좌가 있다고 통보한 금융기관은 대부분 서울에 있으며 입출금 등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계좌를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며 본인에게 확인 있다고 통보한 금융기관은 대부분 서울에 있으며 입출금 등 금융거래 내역을 살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계좌를

검찰이 확인 중인 계좌는 김 변호사가 삼성그룹에 입사한 1997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개설된 계좌이며, 고발장에 드러난 기존 4개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입출금 내역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또 이날 비자금 사건 관련자 일부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삼성 쪽도 있고, 아닌 쪽도 있다. 여러 정황상 출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출금 조치를 취했다”라며 “김 변호사의 마지막 기자회견도 참고했다”고 말해 이견회 회장 부인 홍라희씨, 홍승원 서미결러리 대표 등에 대한 출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4~5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압수수색 여부와 관련, “필요한 것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삼성 본관과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 親朴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나

### 한나라, 의원 첫 탈당에 ‘슬렁’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두고 나온 친박(親朴·친 박근혜)계 곽성문 의원의 탈당으로 한나라당이 슬렁이고 있다.

지도부는 애써 개인적 탈당으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를 택한 곽 의원의 결정이 박 전 대표 측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부심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당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친박계 의원 2~3명의 추가 탈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방호 사무총장은 “곽 의원의 돌출행동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2의 탈

당이나 그룹계 탈당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측 다른 핵심 관계자도 곽 의원의 탈당 소식에 “내년 총선 공천 불안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것으로 본다”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회창 후보 출마 뒤 한때 움직임이 주시됐던 충청권의 한 의원은 “충청도는 이명박 후보로 굳혀지는 기류”라면서 “탈당 같은 기류는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BBK 수사결과가 발표될 다음 주가 변수라는 데는 친이(親李·친 이명박)나 친박측 모두 동의하고 있다. 박 전

대표측에서도 곽 의원의 탈당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친박계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번 탈당이 친박계 의원들의 탈당 신호탄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측근은 “우리 내부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탈당을 완전히 개인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측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이번 대선에 임하는 입장을 두고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朴, BBK 사실이면 李 지지 철회?

### 육영수 여사 송모제 참석…지원유세 중단 시사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9일 “검찰에서 (BBK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그 이후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는) 그때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해 주목된다.

박 전 대표의 이 발언은 만일 ‘BBK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원유세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옥천에서 열린 육영수 여사 송모제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BBK 수사결과가 나와도 지원유세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BBK 문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면 그

에 따라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중간 수사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5일 직전인 4일까지만 지원유세 일정을 잡아두고 있어 그 의미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박 전 대표는 또 측근인 곽성문 의원의 탈당과 관련 “어제 통화를 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나는 다시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오는 30일에는 호남, 다음달 1일에는 경기, 3일과 4일에는 제주·전북 지역에서 지원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 대선후보 비방 벽보

### 경찰 수사 착수

광주지역에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비방하는 벽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은 공식 선거 운동 이틀째인 지난 28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총창로 5가 광주극장과 수기동에서 ‘이회창 후보의 출마 과정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불법 벽보 2장이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대자보용 전지(94cmx118cm)에 여러 색깔의 매직펜으로 글을 쓴 점 등으로 미뤄 그동안 유사한 글씨체와 방법으로 광주 지역에 대자보를 붙여온 단체 등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장애인 대선 투표 시연회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이웃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9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남도향동음식 박물관 3층에서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선 투표 시연회’를 가졌다. 장애인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YS, ‘시대정신’ 대담 “나는 이래서 쏘·盧 감옥에 보냈다”

“전두환, 노태우 건은 기본적으로는 역사의 판단에 맡기려고 했는데, 설마 몇 천억의 돈을 가지고 있을 줄을 몰랐어요. 그런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뉴라이트재단과 헤럴드미디어가 공동 발행하는 계간잡지 ‘시대정신’ 2007 겨울호와 가진 대담에서 털어놓

은 일화 중 하나다.

시대정신에 따르면 인터뷰에서 김 전 대통령은 “솔직히 전두환, 노태우를 그렇게까지 감옥에 보내려고 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상황 변화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노태우 비자금 조사내용을 보고 받으니까 차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기를 이 천문 화적인 돈을 도둑질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광주에서 민간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잡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the 'Women's World Symposium'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축하합니다) with logos for sponsors like Oh Hyeon-gu, Bigo, Gyeongseon, and SASA.